

道 금융중심지 대서막...자산운용 허브 시동

혁신당 “전북 대표포퓰 여론조작 원인 제공 정당 정치 책임 져야”



전북·국민연금·KB 금융생태계 조성 '원림'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국민연금·KB금융그룹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국민연금·KB와 3자 업무협약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조성 530명 규모 금융인력 집결 국제금융컨퍼런스 3년간 개최

전북도가 국내 금융중심지 선두로 도약하는 대서막이 열렸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 계획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민·관·공이 원팀을 이뤄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국민연금공단·KB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역할을 나뉘 맡는다.

도는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북 특색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그룹은 KB증권·KB자산운용

등 핵심 계열사 기능을 집결시키며, 지난달 발표한 250명 규모에서 늘어난 약 380명이 전북혁신도시에 근무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북혁신도시 외 전주 지역 근무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530명 규모로 확대된다.

금융타운 기능 강화 차원에서 기존에 밝힌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손해보험(스마트광역센터), KB국민은행 전문 상담조직(스타링크)에 더해 KB희망금융센터 개점과 KB Innovation HUB 센터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손해보험 관련 조직을 배치해 전북혁신도시를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지점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KB희망금융센터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KB Innovation HUB 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 인재 양성, 지역 상생 등 폭넓은 과제에 함께 추진한다. 전북의 금융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3

년간 총 3억 원을 들여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블랙록·피델리티 등 글로벌 투자기관의 패널 참여와 청년 대상 모의투자대회도 병행한다.

금융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단계별 전주기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KB금융공익재단 전문 강사와 공단 실무진이 참여하는 금융 이해력 교육과 도내 대학 연금관리학과와 연계한 'NPS 오픈캠퍼스' 현장 실습 및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도 이어진다.

농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연금으로 환원하는 '마을자치연금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고 전북 소재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1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및 경영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결정적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기업의 실질적 투자와 전문인력 상주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의 실체를 완성하고, 국내외 우수 금융기관 추가 유치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민간 주도 균형발전 사례로서,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금융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성장

조국혁신당 도당 논평서 성토 “충성경쟁·금권 개입 구조 끊어야” 외부 참여·기록 공개 의무화 제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 갑 지역구의 당선무효 사태는 전북 정치의 고질적인 대표포퓰 여론조작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책임 정치의 원칙이 무너진 결과로 재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다수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여론조작 및 금권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전북 지역은 충성 경쟁을 통한 공천 받기가 불문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성경쟁에는 금품제공과 조직 동원이 주요 매뉴였고 이에 조국혁신당은 ‘돈공천 근절 4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율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돈공천 근절 4법’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공천심사 과정 외부 독립위원 참여 의무화, 공천심사 기준 및 회의 기록 공개 의무화, 공천 비리 발생 시 정당에 대한 제정·선거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을 겨냥한 공세가 아니라, 정당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안이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민주당에 군산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돈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해 공천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전북을 정당 전략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18개소 전 사업장 특별점검 지반침하·균열 등 집중 확인

전북개발공사가 해빙기 대비 지반 약화로 인한 침하·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해빙기 대비 사업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20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및 추진 중인 사업현장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인 임대주택, 건설사업현장, 개발사업현장 등 해빙기 취약요소가 우려되는 전 사업장을 점검 범위에 포함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 및 건물 균열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 블록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결과와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해빙기

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공정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빙기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며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개선조치를 통해 전북도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 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금액	세액공제+답례품
100,000원	130,000원
200,000원	204,000원
1,0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2,436,000원
20,000,000원	9,411,000원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1

지정기부
야생벌
불붙이를
지킵니다

2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쌀 과잉 잡고 소득 제고”

지원 품목 확대·지급 단가상향 수급조절용 벼·알팔과 등 신규 포함 옥수수·깨 지원 150만원 인상 2월 23일부터 직불금 신청 접수

전북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품목을 늘리고 지급 단가를 인상,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콩·조식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공급 과잉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품목 확대 ▲지급 단가 인상이다. 올해부터 수급조

절용 벼, 알팔과, 율무, 수수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영농 여건에 맞춰 보다 다양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시장과 사전 분리하고, 공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신속히 밥쌀로 전환하는 ‘에비 물량’ 역할을 수행한다. 지급 단가는 ha당 수급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팔과·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이다

기존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옥수수와 깨(참깨·들깨 등)의 지급 단가는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계조사료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비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략작물 재배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북타임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확대 개편은 쌀

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정읍 감곡면서 ‘토방청담’ 주민 소통 강화

주민 100여명과 소통 활동 가락제 준설·도로 확포장 논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읍시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10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淸談)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 끝나자마자 토방청담을 통해 감곡면민들을 뵈게되어 반가움이 크다”라며 “올 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감곡면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발전구상 건의에 이은 답변이 있었다.

이유 의사항은 △가락제 준설과 수문·여수로 정비, △관봉마을의 전방준 장군 생가(13세~18세)터 유적지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 마을 선정,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조기 보급, △농민의 생명값인 쌀값 안정 및 읍·면 단위 농업인 친수구역 소하천 정비, △농지 및 민중 중심지의 토지이용제한 완화, △중곡마을 주변 농지 280ha의 용수 문제 해결, △신평마을 앞 소하천



윤준병 의원

개거사업 조속 시행, △노인 일자리를 면단위 구역제에서 마을 책임제 전환, △원평~감곡~신태인간 701번 도로 4

차선 확포장, △감곡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야외공연장 조성 등이다.

윤 의원은 토방청담 이후 원삼마을 경로당 어르신들께 설 세배를 드리고, 경로당에서 접수된 △경로당 마당의 관정 모터 교체, △경로당 쌀 추가 지급 등 민원에 대해서도 도·시의원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어서 토방청담에서 제기된 민원인 가락제 준설, 소하천 수로 확장, 감곡면 유정지구 용수 공급의 현황을 답사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윤 의원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土訪淸談)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누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민 소통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 구인 정읍·고창 지역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김영목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동시투표 길 열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신설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발 현재 “불합치” 10년만 후속 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결 과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여당의 개헌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10여년간 지연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당시 현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는 2015년까지 입법 보안을 권고했

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1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

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령이 국민투표일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 및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국회 의원 개헌 의결정족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그린 야외스튜디오’ 참가자 모집

전북도는 도내 생태관광지를 배경으로 결혼식과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그린 야외스튜디오 사업’ 2026년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삼천리길과 생태연못 등 주요 생태관광지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집 대상은 도내 거주자 또는 전업 예정자가 포함된 예비부부·리마인드 웨딩 희망 부부와 3인 이상 도내 거주 가족이다. 선정되면 야외 예식 연출, 예

북·메이크업, 스냅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며, 가족사진은 원본과 액자, 탁상달력을 제공한다.

올해는 가족사진 촬영 지원을 기존 3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사업은 도내 주요 생태관광지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소규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 선정자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장소와 일정을 확정한다. 신청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안호영 “전북 비전, 반도체·피지컬AI 제조 결합해야 완성”

실증 넘어 양산 체계 구축 강조 청년 유출 막을 제조기반 필요 300조 지방투자 전략 배치 촉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전북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반도체와 피지컬AI 제조가 결합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의 전북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우홀 미팅’과 관련,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 대통령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을 ‘전통

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으로 규정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제조 산업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산업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전북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문제는 산업 비율이 아니라 고임금·고숙련 제조기반의 성장 사다리가 지역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과 식품은 더욱 고도화해야 하며, 전북을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 거점이자



안호영 의원이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열리는 대통령 탄우홀 미팅 전 전북 미래산업 전략 정책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전략은 시키기 어렵다”며 “미래 제조 산업을 결합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것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반전

<전북타임스>

자연생태계 보전, 우리의 작은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함께 사는
도심 속 생명의 터전, 전주천입니다.”



“전주시 탄소산업 시장 넓힌다!”

‘수소저장용기 인증시험센터’ 23일 개소식 개최
국내 탄소섬유 시장 확대



<사진=전주시>

전주시가 지역 탄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과 제품 상용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23일 우범기 전주시장, 박규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조성경 산업통상부 섬유탄소나노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은 ‘수소저장용기 인증시험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가졌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3월 가동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메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와 연계해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 시는 ‘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0억원을 투입해 △수소가스 반복가압

시험 장비 △가스투과시험 장비 △파열 시험 장비 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힘든 8종의 첨단 설비를 갖췄다.

이번에 구축된 설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600L급 대형 수소저장용기 시험이

가능한 인프라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증시험센터 문이 열리며 국내 수소저장용기 제조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해외에 의존하며 겪었던 시간적·비용

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핵심 탄소 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술자립 강화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수소용기 고압성·경량성 확보 기술의 핵심인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탄소섬유 시장 수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센터를 국제표준 시험·교정 기관으로 인정받아 해외 인증기관들과 협력해 글로벌 수준 시험인증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형 수소저장용기 시험 장비 가동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국내 기술로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간 고난도 인증 시험은 해외 기술을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김영태 기자

“여행 추억담긴 전주의 기록물 찾습니다!”

시, 3월 31일~5월 29일까지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전주의 옛 모습과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기록물을 찾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주, 여행의 기록을 찾습니다’ 주제로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2000년 이전 생산된 전주 관련 실물 기록 자료이다.

주요 여행수집 대상은 △전주 수확여행 △전주 신혼여행 △전주 가족·친구·동료 여행 관련 사진 △전주 여행지 기념품(엽서, 배지, 굿즈) △전주 관광 안내서 △전주 교통 티켓(열차, 버스) △전주 여행 일기 △편지 등이다.

여행 주제 이외 △전주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경제·사회 분야 근현대 사진류 △문서류 △생물학·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모두 응모대상이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기증자에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은



누리상품권과 함께 기증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전주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증된 기록물은 향은향습과 소방시설 등 보존 설비를 갖춘 전주 시민기록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전주의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록물과 함께 전주시민기록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phm0507@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청년·기업 동반 성장 이끌 ‘2026 전주기업반’ 운영대학 모집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운영대학 공개 모집

전주시가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를 연결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나간다.

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2026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운영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전주기업반’은 대학이 지역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면, 시가 교육 운영비와 학생들을 위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선정된 1개 운영대학에는 9000만원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원되며, 해당 대학은 이를 활용해 오는 4월부터 참여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직무교육 △기업 탐방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자

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대표적으로 사업 초기 이공계 중심이었던 교육 분야를 전주시 주력산업인 ‘관광·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대학간 장벽을 허물고 운영대학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타 대학 학생(졸업생 포함)도 일정 부문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지역 우수 인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대학 학사일정과 인턴십 기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업 추진 일정도 기존 5-6월 공모에서 2-3월로 앞당겼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모문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를 작성한 뒤,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시청별관 9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2026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취업 강화를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는 지난 3년간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대학교와 함께 72개 지역기업과 협력해 시스템·네트워크 실무 등 23개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주기업반에 참여한 이공계 학생 90명 중 총 83명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으며, 이 가운데 25

명이 인턴십 과정을 밟고 있다. 또, 40명이 정보통신기술과 전기 분야 등 협약기업으로 취업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전주기업반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최대 4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전주기업반 사업은 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앞당기고, 타 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가 전주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주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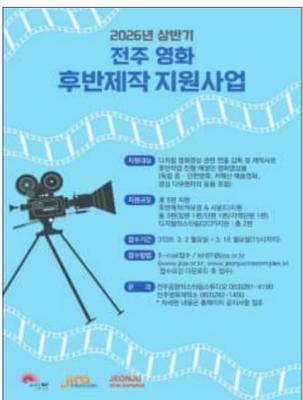
전주시 독립예술영화 완성 후원자 앞장

3월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공모

영화의도시 전주시가 독자적인 독립예술영화 완성 후원자에 앞장선다.

23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영화제작소는 ‘2026년 상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참여 작품을 오는 3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영화인들에게 △색보정 △사운드 △디지털 시네마 패키징(DCP) 등 고영화제 출품 및 개봉까지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전국 장편 1편 △전국 단편 1편 △지역(전북) 단편 1편 △DCP 제작 지원 2편 등 총 5편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후원자 사업은 고가의 후반작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창작자가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시는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독립영화계 숨은 원석을 발굴하며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관련해 ‘23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받은 ‘당신으로부터’(감독 신

동민), ‘2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K-Number’(감독 조세영), ‘24년 부산국제판타스틱영화 작품상 수상작인 ‘에스퍼의 빛’(감독 정재훈) 등이 탄생했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작들도 후반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 또는 전주영화제작소 누리집(www.jeonjuincomple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경기전제례보존회 ‘전통 제례문화보존’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및 후대 전승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자리 마련

전주시의회-(사)경기전제례보존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통 제례문화 보존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전통 제례문화 보존 협력 간담회는 시민 참여 확대 및 후대 전승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관우 의장, 이남숙

의원, (사)경기전제례보존회 이강원 회장, 이승형 전례이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석해 경기전 제례 역사적 가치와 운영 현황, 전통 제례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관심 및 지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시의회의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경기전과 제례의 의미를 공유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개최

“바람이 남긴 자리 봄이된다” 전주 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공연이 개최된다.

공연은 ▷라흐마니노프 ▷슈만의 서정적인 합창 작품 그리고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곡 우리말노래의 정서를 아우르는 클래식 올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주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는 예술감독 겸 김철 지휘자와 함께 오는 26일 15시 30분 한국문화의 전당 연지홀에 연주된다.

이 자리에서 시립합창단은 라흐마니노프 ‘All-Night Vigil(저녁기도)’ 중 발레곡을 연주하며 장엄하고 명상적인 합창음악 정수를 들려준다. 이어 슈만 ‘Spanisches Liederspiel(스페인 노래곡)’ 낭만주의 특유 섬세한 감성과 서정미가 선보여진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박정순·배동진·허철재·성거 서정미가 선보여진다.

이와 함께 만돌린과 기타로 구성된 SONGS DUO(만돌린리스트 송시예&



기타리스트 송시예)가 스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스피클의 ‘부예노스아이레스의 구름’ 등을 연주해 섬세한 음색과 이국적인 정취를 더해준다. 또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보여주는 세피라 협연(전주시립국악단 유승영이 어우러져 공연 색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공연의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김민아 등 동시대 정서와 시적 감성을 담아낸 창작 무대가 꾸며진다.

이와 함께 만돌린과 기타로 구성된 SONGS DUO(만돌린리스트 송시예&

/정소민 기자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 민생경제살리기 프로젝트 ‘함께장터’ 나눔

23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식사 나누며 함께장터 동참

전주지역 정밀가공 뿌리산업 기업들이 기부와 나눔,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형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인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회장 김강석)는 23일 전주지역 복지시설인 더나눔주간보호센터와 해냄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등 60여 명과 함께 지역 식당을 찾아 한 끼 식사를 나눴다.

지난 2024년 설립된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는 정밀가공 뿌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15개의 회원사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협회 회원사들의 모은 기



<사진=전주시>

부금을 활용해 골목식당에서 식사를 나눔으로써, 기부가 지역 소상공인 가계에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환원되는 ‘전주함께장터’의 선

순환 구조를 직접 실천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이날 나눔의 현장 찾아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

/정혜민 기자

‘전북에듀페이’ 청소년 16만3천명 지원

전북교육청, 초1~고3 입학·학습·진로지원비 총 238억여원 지급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63,000여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총 238억여원의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이다.

교육과정 단계별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하며, 전북교육청이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0만원, 중·고등학교 15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2-5학년, 중·고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15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 6학년, 중·고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타디오키오,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2026년 1월부터 학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으로 최대 30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으

로 최대 60만원이다.

올해는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지원 금액이 다소 감소했다.

전북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한층 덜었다.

입학지원금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으로,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교밖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장정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소질과 적



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2025년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 발표

전년 대비 성취율 9.8%p↑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익산·순창교육지원청을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군산·김제·진안·부안교육지원청을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역량을 진단해 잘된 점은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북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이번 평가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2개 그룹으로 나눠 △수업혁신 △학력신장 △책임교육·돌봄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및 학교지원 우수사례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정량평가 결과 14개 시·군 교육지원

청은 전체 19개 지표 중 평균 181개를 통과해 95.5%의 성취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성취율 85.7% 대비 9.8%p 증가한 수치로,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 추진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평가에서는 익산지원청이 다문화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밖돌봄을 주제로 한 다(多) 가치 공존, 더(THD) 깊은 존중: 익산형 교육안전망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10대 핵심과제와 주요 정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성과정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시책과도 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디지털 튜터 대폭 확대, 현장 지원 강화”

지난해 225개교서 올해 250개교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25개교 규모로 운영되던 디지털 튜터를 올해는

250개교로 확대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튜터’는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및 AI 기반 학습 활동을 현장에서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수업 지원,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학생 맞춤형 학습 활동 지원, 스마트기기 관리 및 활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은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디지털 튜터 양성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요청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마련, 디지털 기반

수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튜터 확대는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이라며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대 ‘2026년 생활과학교실 방학 특강’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센터장 유수창)은 23일 지난 한 달 동안 대학 내 두드림센터에서 초·중생 8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과학교실 방학 특강’을 진행했다.

방학을 맞은 지역 내 학생들이 과학을 높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상 속 음식 만들기, 실험 활동을 통해 중력·자기력·힘과 운동 등 과학적 개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화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이야기 △나도 과학자! △신나는 요리 ~ 맛있는 과학 △MBL 활용 물리 실험 △골드버그 장치 속 과학원리 △그레비트랙스 에 과학을 더하다! △AI코딩과 로봇 등 학년별 수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아이들에게 코딩과 로봇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과학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해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군산대의 방학 특강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생활과학교실’의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선수단, 전국동계체전 출전...대기록 달성 ‘도전’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27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산)에 따르면 전국동계체전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등 약 380명이 전북 체육의 명예를 걸고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동계종목은 아이스하키와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8개 종목이며 앞서 빙상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다.

/장정철 기자

전북 선수단은 전역 분석 결과 약 6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통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다수의 메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키 등 다른 종목에서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현재까지 펼쳐진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도 체육회는 대회 기간 선수스트레이너도 파견,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경기력 향상을 높일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Good Bye “미세먼지”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가용
이용을 자제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중
급출발, 급제
동, 공회전
삼가 하기



나눔기를
이용하고, 나홀로
운행자제



실내 공기를
위해 정화
식물
키우기



요리시
직화구이
삼가 하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이론·실습 병행 현장 중심 교육

군산시는 지역 농업을 이끄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2026년 제19기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60회, 256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과 △기능·귀촌과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스마트농업과는 기초 재배 원리 이해를 중심으로 작물 생리, 토양·환경 관리, 병해충 이해, 재배 실습 등을 교육해 스마트농업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귀농귀촌과는 귀농·귀촌 희망자 및 초기 정착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초, 작물 재배기술, 농업정책, 농업경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는 도시농업의 이해와 작물 재배기술,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해 교육하며, 자격 취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농업인회관과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에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함께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공시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주소정보시설 5만여개 전수조사·안전조치 실시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 5만4,387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다.

주소정보시설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노후되거나 훼손될 경우 위치 파악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군산시는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노후되거나 훼손될 경우 위치 파악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군산시는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물의 오염·변색·망실 여부를 비롯해 설치 위치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오류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주소정보시설은 철거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복합내병성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 개발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정읍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를 개발하고, 올해 110ha 규모의 재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보급에 나선다.

이 품종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수요자 참여 벼 신품종개발(SPP) 사업을 통해 거둔 결실이다.

특중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등이 현장 연구에 직접 참여해 정읍의 재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자를 찾아냈으며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달하미'라는 이름이 최종 확정돼 지역 상징성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참동진(전주623호)'과 '남찬(전주595호)'을 교배해 만든 달하미는 쌀알을 크게 만드는 유전자(gs3)를 지니 외관이 굵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달하미'는 쌀알이 익어가는 등숙기(9~10월) 고온 조건에서도 현미 정상립 비율이 72.1%로 나타나, 기존 중대립 품종(25.4%) 대비 우수한 등숙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수 시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든든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미혼 청년 대상...임대주택 거주 또는 입주 예정자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익산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금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

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자녀 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세대에 22억 4,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무이자 용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내장호를 정읍 관광의 중심으로”

복합 관광지로 육성 6개 핵심 기관 모여

정읍시가 가을철에 집중된 내장산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장호 일원을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사와 지자체 등 6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내장호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학수 정읍시장, 영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한경동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태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장호 일원을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미래 관광 청사진을 공유했다. 정읍시가 구상하는 내장호 일원의 미래상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치유와 체험, 체육, 접근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광 생태계 구축이다.

호수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치유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을 다지고,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레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계절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기존 내장산 관광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실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내장호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 자체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내장호 일원이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 또한 "오늘 현장 방문은 내장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정읍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내장호 일원을 단종 명소를 넘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고, 머물고, 치유받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단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청년 창업기업 육성 본격화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3월 6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에 힘을 실는다.

익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18~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비창업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

다.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실로, 2인실 1실과 1인실 4실이다. 사용료는 1년 기준 2인실은 119만 6,420원, 1인실은 각 38만 7,430원이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바이오·출로그림·주얼리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디자인·광고·마케팅 등 입주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

상이다. 입주기업은 익산청년시청 내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익산'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 유치(IR)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jiwon2da@korea.kr)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 지원을 넘어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스마트팜 개소

자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자립 기반 ↑

군산시는 23일 미성문화길 4-5(구 미성동주민센터)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3,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군산시 공유재산인 구 미성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자활사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 환경과 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75평 규모로 조성된 자활 스마트팜은 자동 온·습도 조절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 로메인상추와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지역 자활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조기 폐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내달 13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25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1,120대, 저감장치 부착 20대 등 총 1,140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3,912대를 지원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모든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기 폐차 대신 저감 장

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의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문자 전송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께선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돌입

3월 16일까지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읍시가 지난 11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소장 6명과 실·과·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읍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 사업 52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지역 개발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읍항도내 전역 종합정비(60억원) △성장축인 지역개발사업(287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성장을 견인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군산시>

군산시, 누리집 개편...시민 의견 듣는다

큰 글씨 보기 등 접근성 강화

군산시가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 개편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누리집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상담 기능(챗봇)과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 도입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8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누리집 방문 목적과 이용 기기 △메뉴 구성 및 디자인 만족도 △AI

챗봇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달의 명수',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큰 글씨 보기' 기능과 간편 인증 방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설문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군산시 누리집 공시사항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대기환경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 지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대기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며, 설치비의 60%(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배출·방지사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특히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익산시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문화예술인 발굴한다

문화예술 및 공예 분야 명인·명장 선정 추진 3월 23~27일 신청·접수

부안군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인과 공예장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부안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보존하고자 부안군 명인·명장을 각각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일 지역 문화예술 및 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활동 경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계획 공고를 실시했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문화예술인과 공예장인으로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며 기량이 뛰어난 사람,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부안군에 둔 사람 등이다.

또 전통 방식과 기술을 활용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해 온 사람이거나 하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상급기관의 국가지정·도지정 무형유산 및 명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과 제출 서류, 세부 선정 기준 등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실기·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전문성 보유 정도와 활동 실적, 지역문화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명인·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명인·명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기술 계승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2026년 '명품 고창수박 첫 정식'

지리적표시 고창수박 본격 재배...5월 하순 수확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대한민국 명품 수박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은 고창수박이 본격적인 재배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무장면 박형남 농가 수박 재배포장에서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 재배농가와 고창군이 함께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의 결실이다.

그 결과 고창수박은 2024년 9월 20일, 지리적표시 제116호로 공식 등록됐다.

고창수박은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1기작 수박 모종 정식이 진행되고, 이날 정식된 수박은 5월 하순쯤 수확돼



2026년산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한 첫 고창 명품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박형남 농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출시 기념 경매 행사에서 수박 한 통이 500만 원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으로, 고창수박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국에 알린 대표 농가로 다시 한 번 고창수박 명품화의 상징적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수박은 기후와 토양, 농가의 정성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명품 농산물이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새고창장례식장, 웰다잉 인식 향상 '앞장'

전북 고창군의 새고창장례식장이 이끄는 조미영 대표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주목받고 있다.

새고창장례식장은 2006년 故조병채 원장 설립 이후 지역 장례문화를 선도해왔으며, 관내 유일 11년 연속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제3회 웰다잉 인식 향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생명 존중과 존엄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화재로 잃은 보금자리 희망으로 다시 짓다!

김제시, 빈집재생사업 시행

김제시는 화재로 주거 공간을 잃은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활용,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덕면에서 주택 전소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로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으로 현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마을 회관에서 임시 생활 중이다.

시는 피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임시 거처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

함으로써 빈집을 활용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김제시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한 전소 주택의 결과 리모델링을 통한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으며 추후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피해 주민이 자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르신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보건소, 16개 보건사업 홈페이지 e-신청 서비스 구축

부안군은 군민 편의 증진과 비대면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 내 e-신청 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고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신청 서비스에는 기존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16개 의료지원 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사업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부안군보건소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접수 및 서류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병 보건소장은 "홈페이지 e-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디지털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대 부안캠퍼스 예코농산업 벤처시스템학과, 학위수여식 성료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북대 부안캠퍼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23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25학년도 제2회 학위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과 개설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백승우 학과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우수 졸업생 시상, 학위 수여, 재학생 송사 및 졸업생 감사 순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17명의 졸업생들은 지난 4년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농생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추기 위해 학업에 매진해 온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지역사회를 향한 졸업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눈길을 끌었다. 조재강 졸업생과 학과 총학생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학금으로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기탁해 행사의 훈훈함을 더했다.

권익현 부안 군수는 "일터와 학업을 성실히 병행해온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이 부안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 또한 신활력사업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3월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김제시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대여, 판매, 정비, 해체·재활용 등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기가장 및 사무실 등 시설 보유, 기술사 확보 등 사업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자가용 영업행위와 무허가 불법정비 행위, 주택가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뿐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새고창장례식장, 웰다잉 인식 향상 '앞장'

새고창장례식장, 웰다잉 인식 향상 '앞장'

전북 고창군의 새고창장례식장이 이끄는 조미영 대표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주목받고 있다.

새고창장례식장은 2006년 故조병채 원장 설립 이후 지역 장례문화를 선도해왔으며, 관내 유일 11년 연속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제3회 웰다잉 인식 향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생명 존중과 존엄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조미영 대표는 시상식에서 "웰다잉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책임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새고창장례식장이 장례서비스를 넘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첫 이사회 개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안건 '2025년도 사업결산(안)'과 제2호 안건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는 2025년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을 검토하고 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점에 공감해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점검

고창군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월6일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월로 예정된 소각시설 최초 정기검사에 앞서 소각시설의 성능 유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더욱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22·25일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과 주요 설비 교체 및 정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점검을 거쳐 3월 6일 재가동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각로 및 부대 설비 정밀 점검 △환경오염 방지시설 점검 및 정비 △노후 부품 교체 등으로, 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고창군 관계자는 "정기점검은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각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특히 작년대적인 청소 작업과 주요 설비 교체 및 정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점검을 거쳐 3월 6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작은도서관 3곳에 순회사서 지원

문체부 공모 선정...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 질 ↑

김제시립도서관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17년부터 10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작은도서관에 지역의 전문 운영인력을 지원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순회사서 1명의 인건비, 방문활동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2천7백만원의 사업비(전액국비)를 지원받아 검산, 새마을, 희망남도 작은



도서관 3곳에 순회사서를 지원한다.

지원된 순회사서는 각 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 정리 전반, 도서관 컨설팅 등을 통해 양질의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이번 순

회사서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고 질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23개 항목 운영

'온열질환 진단비' 포함 군민 체감형 안전복지 강화

고창군이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총 23개 보장 항목을 가입·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

을 포함해 총 23개 항목을 보장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안전복지를 한층 강화한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를 통해 문의 및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과 생활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문화도시 3년 연속 '우수' 성과

문체부 성과평가 '우수' 획득 5년 문화도시사업 성공적 마무리 생활문화·마을거점 기반 확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2021년 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문화도시 성과평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법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체계, 주민 참여 기반, 지속 가능성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식 평가 절차다. 군은 그간 생활문화 활성화와 마을 단위 문화거점 운영,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다져왔다. 5년간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추진 체계의 안정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지역문화 확산 효과 등 축적된 성과가 이번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5년간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문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 지원사업 공모 도내 유일 '2관왕'

고용부 공모 선정 3억5천 확보 도전·성장 연계 단계별 지원

남원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잇따라 선정되며 사업비 3억 58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와 성장 단계를 연계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세부터 45세까지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올해 52명 규모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2026년 수행기관으로 휴먼제이앤씨를 선정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기관은 2025년 전북도 사업수행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한다.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 364명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인생 설계 교육, 직무 탐색, 네트워킹 형성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동문로 50-7)와 남원 청년도전지원사업단(남문로 448, 3층)을 거점으로 오는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동시 선정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회복부터 직무 역량 강화, 그리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지리산권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리산권 청년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남원에 머물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봄 향기 가득' 삼례 딸기축제 3월 6일 개막

우수축제 선정 도비 2800만원 확보 셔틀버스·주차장·안전대책 강화

완주군이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를 개최하며 봄의 시작을 알린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돼 도비 2,8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삼례 딸기축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삼례 딸기는 뛰어난 당도와 신선함을 자랑하며 매년 많은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과 딸기 디저트·가공식품 시식,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무대 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즐거움과 추억을 동시에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인근 주차장 확대, 쉽 운영,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는 지역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라며 "삼례에서 많은 분이 축제를 함께 즐기시길 바라며,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



<사진=완주군>

람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인근 주차장 확대, 쉽 운영,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는 지역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라며 "삼례에서 많은 분이 축제를 함께 즐기시길 바라며,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

람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인근 주차장 확대, 쉽 운영,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는 지역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라며 "삼례에서 많은 분이 축제를 함께 즐기시길 바라며,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

완주군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급단가 상향

알팔파·울무 등 신규 포함 1ha 최대 550만원 지급

완주군이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한다. 군은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비롯해 알팔파, 울무, 수수 등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기반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대상 품목 확대는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조사료 및 특용작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인의 작물 선택 폭을 넓히고 전략작물 재배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략작물 재배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도 상향 조정된다. 작물별 단가는 1ha 기준 △식량작물·조사료 50만 원 △밀 100만 원 △옥수수·깨 150만 원 △두류·가루쌀 200만 원 △조사료 550만 원 △수급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팔파·울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 등이며,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1ha당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쌀 과잉 생산 구조 완화를 물론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작물 재배 다양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교통정보 앱 고도화·실시간 위치 확인

실시간 운행 정보 중심 불편 해소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정보 제공

남원시가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스마트 행정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시는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기능'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앱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버스 정보 안내기(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었으나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버스의 현재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해당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정류장을 자동 안내하고, 노선을 검색하면 버스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알기 쉽게 보여준다. 아울러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의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그동안 버스 정보 안내기(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었으나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버스의 현재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해당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정류장을 자동 안내하고, 노선을 검색하면 버스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알기 쉽게 보여준다. 아울러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의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34억 투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본격화

논이모작 시 최대 700만원 직불금 지급률 농가소득 동시 강화

남원시는 관내 조사료 지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조사료 분야에 총 34억원(국·도비 14억 원,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26억 원 △재배농가 장려금 및 작업비 3억 5천만 원 △비닐·종자 등 기자재 지원 2억 9천만 원 △스 기계·장비 등 지원 1억 6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추가 파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2월 중 종자를 공급했다. 3월에는 파종 현장을 확인해 생육 상태를 살피고 생산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논 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해 논에서 동계와 하계 조사료를 두 차례 재배할 경우 최대 700만 원(동계 50만 원, 하계 55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월 중 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시에는 추가 파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2월 중 종자를 공급했다. 3월에는 파종 현장을 확인해 생육 상태를 살피고 생산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논 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해 논에서 동계와 하계 조사료를 두 차례 재배할 경우 최대 700만 원(동계 50만 원, 하계 55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월 중 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해빙기 취약시설 438곳 전방위 안전점검

산사태·급경사지 취약지 등 대상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홍보 강화

순창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해빙기(2~4월) 동안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38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139개소 △급경사지 290개소 △건설휘판 3개소 △국가유공자 6개소 등이다. 산림공원과, 안전제난과, 민원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차로 각 관리부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2차로 안전제난과에서 분야별 1개소 이상 표본 합동점



<사진=순창군>

검을 진행해 추진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사태 및 급경사지의 사면 손상 여부와 낙석 발생 가능성 △공사현장의 균열·침하·세굴·포트를 발생 여부 △국가유공자 건축물의 지반 침하 및 기초부 균열, 소방·전기 안전 상태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

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붕괴·전도 등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나 통제선 설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안전신문고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운영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타로카드·프랑스자수 등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이달 24일부터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하모니카 △한글세움 캘리그래피 △프랑스 자수 △아크릴화 그리기 △타로카드 △바레필라테스 등 다채로운 강좌로 운영된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체험형 학습이 가능한 '솫뎀 클래스'도 마련됐다. 솫뎀 클래스는 △AI 세상열기 △가죽공예 △라탄공예 과정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전체 모집 정원은 210명이다. 단, 과목별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월 9일 'AI 세상열기' 솫뎀 클래스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접수 방법은 순창군 평생교육 홈페이지(scedu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순창군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이 이달 24일부터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하모니카 △한글세움 캘리그래피 △프랑스 자수 △아크릴화 그리기 △타로카드 △바레필라테스 등 다채로운 강좌로 운영된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체험형 학습이 가능한 '솫뎀 클래스'도 마련됐다. 솫뎀 클래스는 △AI 세상열기 △가죽공예 △라탄공예 과정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전체 모집 정원은 210명이다. 단, 과목별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월 9일 'AI 세상열기' 솫뎀 클래스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접수 방법은 순창군 평생교육 홈페이지(scedu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순창군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미술관 '세계 명화 이야기' 전시

작은영화관 '영화산책서' 3월 운영

순창군이 군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찾아가는 미술관' 제2탄, 영화관 속 '세계 명화 이야기' 전시를 작은 영화관 '영화산책서'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탄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작은 영화관에서 만나는 세계 명화 이야기'라는 이색적인 콘셉트로 진행돼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작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거장들의 명화를 모작 작품으로 선보인다. 점묘법의 창시자인 조르주 피에르 쇠라를 비롯해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교차 전시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화풍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순창을 찾는 방문객의 일상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스마트경로당 잇는 '온택트 콘테스트' 개막

남원시는 23일부터 관내 36개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온택트 콘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이후 스마트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경험을 높이고, 경로당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선은 2월 23일, 24일에 진행되고, 본선은 25일, 결승은 26일에 이어간다. 온택트 콘테스트는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화상으로 만나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경로당 간 연결해 팀 대항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초성퀴즈, OX퀴즈, 사진 맞추기 등 퀴즈형 프로그램이다. 노래에 맞춰 율동 따라하기, 건강박수 등을 통해 신체 활동도 곁들여 분위기를 살린다. 남원시 담당자는 "온택트 콘테스트를 계기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더 넓혀 어르신 여가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영성 '완주에 종합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설립하겠다'

국영성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국 출마예정자는 "완주군민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주나 대진으로 가야 하는 의료 공백 지역이다"며 "군민의 의료복지, 특히 야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합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 출마예정자는 임신부, 소아·청소년, 어르신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24시간 당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119, 지역병원,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완주군민의 의료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 출마예정자는 민간 협력을 통해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응급·중증 진료 기능 확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 병동 설치 △공급후조리원 및 요양병원 기능 수행 △산업체에 대응 의료체계 구축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 출마예정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에 명시한 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준비를 통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국 출마예정자는 "완주군민이 지역에서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 재배를 위한 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임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저온 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지원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지원 등이다.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이후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고혈압·당뇨병이 있는 주민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군민으로, 고혈압·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전 단계로 확인되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아침 금식 후 진안군보건소 내 센터를 방문하면 기초검진과 체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비만·이상지질혈증 관리 등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28일까지이다.

참여자는 식습관 및 운동 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평가를 받으며, 3개월간 목표를 달성할 경우 3만 원(은누리상품권)의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한국어 교육' 실시

임실군가족센터가 오는 3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글로벌 한국어 마을학당' 및 '한국어 교실'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거나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마련됐다.

올해는 특히 '찾아가는 글로벌 마을학당'의 운영 범위가 확대된다. 전문 한국어 교사가 결혼이민자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속소를 직접 방문해 1:1 또는 소규모 그룹 수업을 진행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더욱 견고해진다. 군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 학습 지도와 부모 교육을 병행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오수의견 캠핑장 '급부상'

이용객 2,795명·반려동물 1,062마리 방문 기록 전국 펫 여행 성지 급부상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시적인 운영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반려친화 관광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캠핑장을 찾은 반려가족은 약 1,000여 가구로, 총 이용객 2,795명과 동반한 반려동물은 1,062마리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단순한 숙박형 시설을 넘어, 반려문화 확산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할로윈 펫스타'는 반려가족 참여형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고, 유기견 교감 프로그램 '안고개'는 생명 존중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반려가족이 안심하



<사진=임실군>

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세분화하고, 청결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려인뿐 아니라 비 반려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구조로 조성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반려문화 형성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아웃도어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반려견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캠프-레저스 포츠-반려문화가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사계절 방문 동기를 강화하

고 전국 단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캠핑장이 위치한 오수의견 관광지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2026 임실N페스타'가 개최될 예정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을 넘어, 지역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복합관광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만족하는 전국 대표 여가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청년 주도형 소통 창구 본격 가동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출범 청년 정책 개선·활성화 나서

무주군이 지역 내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제4기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청년 위원 29명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정책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 및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정책들이 발굴·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라고 밝혔다.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는 무주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능동적인 군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매월 1회 이상 모여 청년 이슈

를 논의하는 분과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으로, 분과별로 1개 이상의 청년 정책을 기획·제안하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결속을 위해 '청년마루'를 거점으로 청년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청년들이 만든 상품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며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팝업 스토어' 운영과 다른 지역의 청년 공간 및 지역 가치 창출가 성공 사례를 직접 배우는 '선진지 견학'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3월 5일까지 상시 접수 산불예방·자연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지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3월 5일까지 상반기 사업 기간 동안 상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파쇄지원단은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파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과수화상병 우려가 있거나 잔가지 직경이 파쇄 가능 기준(600원 동전크기)을 초과할 경우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농업인은 농기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 임대해 자기 파쇄를 해야 한다.

파쇄 대상은 사과·포도 등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추, 깨, 콩 등 발작물 부산물

이며 원활한 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는 파쇄 전 노끈, 비닐 등 불순물 제거 등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 우선순위는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취락농가(고령농, 장애인·여성농) △소규모 농가 △그 외 일반농가 농경지 순으로 추진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는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번 사업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홍삼축제, 9월 18일~20일까지 개최 결정

지난 20일 1차 총회 개최 축제 일정과 기본 방향 확정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테마 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마하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안군은 지난 20일 축제 추진을 위한 1차 총회를 열고 2026 진안홍삼축제의 일정과 기본 방향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내 유일 홍삼 특구의 고장 진안에서 열리는 '진안홍삼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해마다 차별화된 건강·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마이산을 배경으로 '치유와 힐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웰니스 관광형 축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한 구상도 한창이다.

홍삼의 건강 이미지와 자연 속 휴식을 결합해 방문객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안군 기관사회단체장과 문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과 임원 선출을 마치고, 축제 운영 방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추진위원회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축제의 기획, 홍보 등을 맡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도 진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선수단과 가족, 방문객이 대거 진안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힐링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2026학년도 1학기 진학특기반디장학생 선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6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진학·특기·반디장학금 3개 분야 666명으로, 총 5억 2,7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진학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기능 분야의 국제 및 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5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6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반디장학금'은 학기당 1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 지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내인 재학생이 대상이다.

2026년 3월 3일 기준, 보호자 중 1명과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 내에 있어야 하며, 오는 3월 3일부터 27일 (~18:00)까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무주군청 인구협력과 평생교육팀(320-2139 / 2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액 무료 확대

검진 연령 만80세로 상향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올해부터 검진 지원 연령을 기존 만70세에서 만80세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51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 상

당이며, 군은 검진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항목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으로 운영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직접 농업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검진 의료기관은 전주시 소재 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수도권 중심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촉구

수도권 중심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장수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장수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왜곡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계통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정책이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장수군의회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임을 강조했다.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이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만금으로의 클러스터 이전이 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의회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이유로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는 지역 갈등의 원인이 장기 송전망 구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지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정부는 장수군의 청정 자연을 파괴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RE100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추진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

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월 2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 흥천사, 어려운 이웃 위해 백미 10kg 50포 기탁

군산 흥천사(주지 범운스님)에서 2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10kg) 50포(132만원 상당)를 해신동에 기탁했다.

흥천사는 수년간 해신동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군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범운 주지스님은 "재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의 위로를 얻길 바란다"며 "2026년 병오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미영 해신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흥천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백미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완주 이서면에 성금·과일 기탁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완주군 이서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업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최근 사과·배·감귤 각 10박스씩 총 30박스의 과일과 성금 100만 원을 이서면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한 물품과 성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정성을 담아 과일과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성금과 물품 후원은 물론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박정환·고성민 등 5명, 청소년 포상제 영예

박정환 청소년 금장 수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박정환(금장), 고성민(은장), 김운서·김성민·김성진(동장) 청소년 등 5명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끝내 완수하며 '202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포상제'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상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성취를 격려받았다. 이번 행사는 도내 포상 완료 청소년과 지도자 등 125명이 모여 자기주도적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부문에서는 박정환 청소년이 금장을, 고성민 청소년이 은장을 각각 품어 안았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활동과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일정 기간 달성한 청소년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부문에서는 김운서, 김성민, 김성진 청소년이 각각 동장을 수상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사진=완주군>

신동열 운봉애향회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내 고향 남원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남원시(시장 최경식)를 향한 각별한 애정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신동열 운봉애향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지역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아온 신동열 회장이 '내 고향 남원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선택하면서 성사됐다. 기탁금은 남원시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 회장의 고향 사랑은 이번 기부뿐만이 아니다. 그가 이사장으로 소속된 사단법인 운봉아이킴새싹협회는 주민들이 심심일만 모은 재원으로 운봉 지역 출생아 가정에 최대 5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운봉애향회 회장을 역임하며 '2025 남원 배래봉 눈꽃축제'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혈액원 직원 일동,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적십자)는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 직원 일동이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25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는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으며, 도내 위기가정 지원과 긴급구호 활동 등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기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장은 "혈액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뜻을 모아 특별회비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전달된 회비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도주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적십자회비는 다음 달 31일까지 2차 집중모금을 실시한다.

/정혜민 기자



김제 환경미화원 봉사단, 장학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는 지난 20일 김제시환경미화원봉사단(단장 이정훈)이 김제시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정훈 봉사단장은 "현장에서 시의 청결을 위해 힘쓰는 환경미화원들의 정성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탁이 환경미화원과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학재단 이사장은 "새벽부터 도심 환경 정비를 위해 헌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장학금까지 기탁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불령협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불령협회는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부안군 불령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전달했다.

부안군 불령협회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군산 구암동 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에 성금 50만원 기탁

군산시 구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봉임)는 23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구암동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알림] ■

▲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장녀 최정민 결혼 (신랑 박상우 장남 박형순)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어나호텔 2층
일자 :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교통사고 예방수칙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차량 간

안전거리 준수

장 시간 운전 시

적절한 휴식

음주 운전

절대 금지

〈一事一言〉



청년·기술·제도... 전북 스마트농업이 가야 할 길

김관춘
주필

전북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과 김제시가 동시에 선정되며 '전국 최다'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구조 전환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전북이 스마트농업의 실험실이자,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의 가장 큰 상징성은 '이중 트랙' 구조다. 진안군은 신규조성형으로, 김제시는 지구조성형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확보했다. 이는 전북이 산지형·평야형이라는 상이한 농업 여건을 모두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안은 중간간 지역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해 임대형 스마트팜,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 등을 집적한 미래형 농업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단지는 청년농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김제시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이미 조성된 인프라에 제도적 날개를 달았다. 인허가 의제와 공유재산 특례 적용은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농업 스마트업 단지, 스마트 APC와 가공센터를 아우르는 세대통합형 단지는 '생산-가공-유통-창업'이 한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스마트농업 클러스터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청년농 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이다. 농업 진입 장벽의 핵심인 초기 자본 부담을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청년들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구조 개혁에 가깝다. 여기에 교육·연구 기능이 결합 될 경우, 전북은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다. 첫째, 하드웨어 중심의 조성에 머물지 말고 운영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스마트팜의 성패는 기술보다 사람과 시스템에 달려 있다. 전문 운영 인력 확보, 데이터 기반 재배·경영 컨설팅, 판로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후방 산업 클러스터를 실질화해야 한다. 기자재·ICT 기업, 종자·바이오, 가공·물류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진안은 교육·인력양성 중심, 김제는 대규모 생

산과 산업화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이를 도 단위 스마트농업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넷째,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청년농 정착률, 소득 증가율, 기업 유치 실적 등 구체적 지표 없이는 '모범 사례'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전국 최다 선정은 전북 농업이 '보조금 농업'에서 '투자와 혁신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행정의 속도와 현장의 실행력, 그리고 장기적 안목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이 기회는 성과로 완성된다.

한편으로, 이번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그간 추진해 온 농생명산업 전략이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음을 입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농촌 인구 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스마트팜 사업은 기술은 앞서가지만, 인허가 지연과 부지 확보, 공유재산 활용의 한계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적용되는 인허가 의제와 공유재산 특례는 행정 절차의 병목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장치로, 향후 다른 지역의 스마트농업 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전북은 이제 제도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올랐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첨착형 고립된 첨단 단지'로 머무르면 지역 전체의 농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존 중소농과의 기술 공유, 공동 선별·가공 시스템 연계, 스마트농법의 단계적 확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스마트팜이 일부 청년과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농업 전반의 생산성과 소득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때 정책의 정당성도 확보된다.

더 나아가 스마트농업을 지역 산업 전략과 연결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식품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을 융합한 다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어낼 수 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스마트팜, 기능성 식품 원료 생산과 연계한 계약재배 모델 등은 전북형 스마트농업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성과의 성패는 '지정 이후'에 달려 있다. 계획을 얼마나 빠르고 치밀하게 실행하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자치도가 이번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단발성 사업이 아닌, 10년·20년을 내다보는 농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농업이 전북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설

현대차 새만금 10조 투자, 전북의 판이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을 앞두고 전북 도민들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대형 호재가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AI·수소·로봇 산업을 3대 축으로 하는 10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국내 대표 대기업의 미래 산업 투자가 맞물린 이번 발표는 단순한 지역투자 유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략의 공간적 재배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북을 'K-푸드·농생명 바이오·피지컬 AI·재생에너지·새만금'이라는 국가적 핵심 과제를 책임질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규정하며, '5국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낙점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에 치이며, 호남 내부에서도 상대적 소외를 겪어온 이른바 '3중 소외'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발표는 그러한 약속이 실제 산업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탄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수소 생산 인프라와 로봇 생산기지를 연계한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최신행 GPU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제조 혁신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고, 태양광과 결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은 전북을 수소 상용차 산업의 심장부로 도약시키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보스스타디옴내믹스 기술을 접목

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기지와 로봇 파운드리 개념의 도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북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는 전북이 더 이상 전통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주변부 경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계기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경제도 필요하다. 과거 새만금을 겨냥한 대기업 투자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전북 도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허가 지연, 규제 중복, 토지 공급 불확실성 등 관행적 행정 리스크가 반복된다면 투자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중앙정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 기업 친화적 규제 혁신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북 경제의 판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 프로젝트다. 군산·익산 산업벨트 확장, 글로벌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전북 대전환'의 실체가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책임은 이제 전북의 행정과 정치,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달려있다.

문화재 열전



불주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 지정일 - 2002년 8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군산시 나포면 군둔길 226 (장상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6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정읍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희망가 /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해염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 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밧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들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 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 온다
--	--	--	---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 졸업하고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주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북타임스 TIMES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의보물,
갯벌과 철새를 지켜주세요.

어른을 위한 인도 우화집 '판차탄트라'

2천 년을 건너온 지혜의 이야기,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읽다

인도의 오래된 이야기 모음집 『판차탄트라』는 단순한 동화집이 아니다. 동물이 말을 하고, 인간의 욕망과 계산, 우정과 배신이 얽히는 이 우화들은 2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대를 건너 전해지며 인간 사회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다. 어린이를 위한 교훈서로 분류되기 쉽지만, 이 고전이 품고 있는 질문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판차탄트라』는 '다섯'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판차'와 지혜의 확장과 방법을 의미하는 '탄트라'가 결합된 이름이다. 말 그대로 '다섯 묶음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이다.

전승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브라만 학자 비슈누 사르파가 왕의 세 아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 들려준 우화에서 시작되었다. 학문적 교훈이나 추상적 윤리가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와 반전을 통해 삶의 판단력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이 책이 오랜 세월 살아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야기 속에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의리, 뜻밖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우정, 전쟁과 갈등이 남기는 교훈, 이익과 손해의 경계, 그리고 경솔함이 부르는 실수들이 담겨 있다.

다섯 개의 큰 이야기보따리는 서로 액자처럼 연결되며, 독자를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이야

기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

이번에 출간되는 『판차탄트라』는 산스크리트어 원본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편역한 장편이다.

대화체를 중심으로 각 이야기를 독립된 장으로 재구성했고, 고어와 장황한 호칭, 지나치게 낯선 이름들은 과감히 떨어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담고 있는 지혜의 핵심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늘의 언어로 다시 옮겨오면서, 이 우화들이 여전히 현재형의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판차탄트라』의 지혜는 도덕 교과서처럼 단선적이지 않다. 약삭빠름과 영리함, 기민함과 교활함, 술기로운과 간계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같은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지혜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술책으로 읽힌다. 이 책은 독자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판단의 몫을 남겨둔다. 그래서 읽는 이의 삶의 자리와 경험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흥미로운 점은 『판차탄트라』가 특정 문화권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중동과 유럽으로 전해지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슬람 우화를 비롯한 서양의 우화 전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래동화와 민담 속에서도 판차탄트라와 닮은 구조와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꽤 많은 원숭이와 아둔한 악어의 이야기가 판소리 『별주부전』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기보다, 어른을 위한 우화집에 가깝다. 삶의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 관계의 계산과 신뢰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이 오래된 이야기들은 묵직하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도 않게 질문을 던진다. 웃으며 읽다가도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판차탄트라』는 2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세상과 낯설지 않다. 권모술수와 이해관계가 얽힌 인간사의 풍경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 책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바로 그 오래된 속에 지금의 삶을 비추는 지혜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먼저 읽고, 다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동화. 『판차탄트라』는 그렇게 세대를 잇는 이야기로 돌아왔다.

/장정철 기자

판차탄트라 PANCATANTRA



판 차 탄 트 라

다섯 개의 이야기 보따리

2천년전의 우화를 통해 지혜를 찾는다
배해수 박사 BOOK CONCERT

일시 :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
 장소 : 에스디빌딩 5층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3

[09:30] 신년 하례
 [10:00] 1부 : 저자와의 대화 (사회 장우석)
 [12:00] 식사&다과
 [13:00] 2부 : 축하마당 (진행 김석균)
 [16:00] 행사종료 및 뒤풀이장소 이동
 [출연진] 박남준/ 홍성욱/ 박순전/ 박희수

**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니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배해수와 함께하는 시공을 넘는 대화

= 지혜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

